

桑白皮에 관한 研究 (I)

桑白皮의 本草書誌學的 分析

柳 庾 秀 · 安 德 均*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 한의과대학*

Studies on Root Bark of Mulberry Tree (I)

Bibliographical Analysis on *Mori Cortex Radicis* in Herbal and Formularies

Kyung-soo RYU and Dug-kyun AHN*

College of Pharmacy,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n this paper, we studied what the drug name of Sang-Baik-Pi(桑白皮 *Mori Cortex Radicis*) is, how to collect it; and how the chief symptoms had changed in the chinese medical referances and herbological literatures and formularies. Also we bibliographically analyzed in the herbological way the drugs combined with Sang-Baik-Pi and their active principles among the prescriptions in the famous medical book; "Dong-Ui-Bo-Gan", (東醫寶鑑) of our country. Finally, we concluded as follow. Numerous names of botanical origin were described, but it was not recorded that San-Keun-Baik-Pi(桑根白皮) in old days is different from root bark of *Morus* sp. in this times. Sang-Baik-Pi has been a common designation since Ming dynasty (AD 1500). Collections of it were independent of seasons, it could effect perfectly over 10 years old. And its cork layer should be removed after collections, it was especially emphacised that root bark on ground was poisonous. The chiefly cured symptoms with Sang-Baik-Pi were constantly not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Shin-Nong-Bon-Chau-Kyung"(神農本草經) in ancient times, but it has been developed since Ming dynasty. Its uses are widely extended to a surgical and dermatologic disease; rheumatis, beriberi and diabetes in this times, and its efficacies depend upon curing. Prescriptions on Sang-Baik-Pi that were prescribed in "Dong-Ui-Bo-Gam" are there, 177 drugs combined with it. *Glycyrrhizae Radix* is most frequently combined with Sang-Baik-Pi(frequently 68%). It is proved that *Armeniacae Semen*, *Platycodi Radix* etc, in the order take strong effects on anti-tussive, anti-phlogistic, diuretic, anti-pyretic etc. It is expressed 34 times, frequently, that a dose is 3.75g, and it shows that a usual does is 2-4g. As the above prescriptions are classified, the results is as follows, respiratory tract disease is most frequently in 69 prescriptions, the next gastrointestinal tract 13 times, diuretic 12 times, and antypyretic 11 times. Therefore, Sang-Baik-Pi contains a good remedial value chiefly of the effects upon the respiratory diseases.

緒 論

桑白皮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한 낙엽교목인 뽕나무 *Morus alba* L.를 비롯한 같은 속식물의 根皮이다.¹⁾ 코르크층을 제거하여 약용하여 왔으며²⁾ 고래로부터 鎮咳, 消炎, 利尿 및 解熱劑 등으로 配劑하여 번용되어온 한방요약의 하나이다.³⁾

*Morus*속 식물은 養蠶이 시작되었으리라 예측되는 4500여년전부터 이미 중국에서 알려졌다고 하며 처음에는 野生된 뽕잎을 이용하다가 2000여년전에 비로소 재배가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⁴⁾

우리나라에서는 箕子朝鮮時(BC 1123)에 누에 치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그 후 역대의 王朝에서 장려하였고 李朝의 太宗(1401~1418)때에 이미 宮中儀式으로 后妃親蠶을, 世祖(1455~1468)는 種桑法을 제정하여 뽕나무 심기를 적극 장려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

문헌^{5,6)}에 「爨 日初出湯谷 所登榑桑 桑木也... 爨木 榑桑也」 「東方自然神木之... 桑乃箕星之精」 등 옛사람들의 가장 좋은 의복의 재료인 명주실을 만들어 주는 뽕나무를 당시 自然神을 숭상하던 우리의 조상들이 神木으로까지 우상화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蓋桑甚乾濕 皆可食 可以救饑 饑歎民多 餓莩... 歎歲可禦飢餓」⁵⁻⁷⁾는 뽕나무의 열매와 어린 잎이 救荒食物로 이용되었었고⁸⁻¹⁰⁾ 잎은 「爨煎飲之 止渴一如茶法」이라 하여¹¹⁾ 차로 복용되었으며, 「桑皮煮汁染褐色 久不落」⁶⁾은 옷감의 물감으로 쓰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뽕나무는 농민에서부터 王室에 이르기까지 동양인의 생활주변에 깊숙히 뿌리박힌 누에치기의 역사와 더불어 약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나 확실한 기록의 유래는 찾아 볼 길이 없다.

현재 전해진 가장 오래된 天然產物을 의료의 대상으로 언급한 문헌으로 알려진 山海經중의 山經(BC 400~BC 250) 열거한 식물성약물 36 품목중에 「桑」이 수록되어 있다. 약용기록으로

서는 효시일 것이며 中尾¹²⁾는 「桑即 桑根白皮」라 考證하였다.

뽕나무에서 가장 많이 약용되는 부위는 근피이지만 桑葉은 누에의 사료 이외에 「滋燥涼血止血」¹³⁾ 「寒熱出汗」⁵⁾ 등으로, 어린가지인 桑枝는 「通關節 行津液 治風寒濕痺諸痛」¹⁴⁾ 등으로 동일식물의 활용하는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약효를 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根皮, 葉, 枝 및 열매인 桑椹등이 한방약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뽕나무는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흔하게 접할수 있는 친산물이어서 여러 부위와 그 加工物등이 갖가지 異名과 方名등으로 서로 혼돈되어 민간요법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뽕나무속식물이 국내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각종의 치료목적에 다량 번용되는 桑白皮를 비롯한 相關藥물을 생산할 수 있는 막대한 量의 약용자원이 賦存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書誌學의인 정리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약자원개발과 자연과학적인 解明過程에 앞서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라 사료되어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rus*속식물의 각종 약물중 桑白皮에 국한하여 本草文獻과 處方書에 수록된 藥物名, 採取法, 主治症狀의 變遷과 修治 및 우리나라의 名醫書인 東醫寶鑑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처방중 桑白皮와 配劑되는 약물과 약효등에 대하여 본초학적인 측면에서 서지학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고찰하였다.

桑白皮의 本草學的인 檢討

1. 起源植物과 採收 및 藥物名

桑白皮는 神農本草經¹⁵⁾ 木部 中品에 「桑根白皮」로 수록된 이래 後漢末期의 金匱要略¹⁶⁾과 그 후의 名醫別錄¹⁷⁾ 吳氏本草⁷⁾등의 의약문헌에 수재 또는 처방배제된 한방약물이다. 隨·唐代와 그 이후의 여러 한방의약서^{5, 18-20)}에 계승되어 현재까지 한방약물요법의 중요한 약제로 쓰여지고 있다.

起源植物: 桑 桑木 桑樹 白桑 山桑 地桑 鷄桑

女桑 黃桑 蠶桑 子桑 家桑 桑榘樹등^{5,13,21-27})의 여러 이름으로 기록됨을 볼 수 있다. 고문헌인 爾雅⁵)에 「桑瓣有葑者榘…桑樹半有葑 半無葑 名榘也…女桑榘桑 桑木之小而條長者爲女桑…」, 圖經²⁾에는 「木高一二丈 春生葉至夏結實 生青綠熟紫黑 根皮黃白色 如虎斑其葉可以飼蠶…」등 뽕나무의 외형묘사와 유사하며, 半有葑 半無葑은 꽃의 雌雄一家로 인한 열매의 표현과 맞먹으며, 根皮의 호반무늬가 일치하며 누에치기와 관련시켜져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누에가 뽕나무속 식물의 잎만을 사료로하는 單食性昆蟲⁴⁾임을 감안할 때 桑白皮는 다른 한방약물의 기원식물구명과는 달리 뽕나무속식물 이외에는 논의될 여지가 별로 없을것 같다. 李時珍은 「桑有數種 有白桑 葉大如掌而厚 鷄桑 葉花而薄 子桑先榘而後葉 山桑 葉尖而長…」⁵⁾ 또 張隱菴은 「二月發葉 深秋黃隕 四月榘熟…」²⁸⁾등으로 뽕나무의 형상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잎과 열매 및 계절에 따른 성장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원래 뽕나무속 식물은 變異性의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나 광대한 중국대륙에 있어서 농민의 생활과 밀 뽕나무의 이름이 많았을 것이라함은 접한 당연타 하겠다.

최근의 문헌에는 그 기원을 「뽕나무(白桑) *Morus alba* 또는 그 동속식물」^{1,29)}로 또 「산뽕나무(山桑) *Morus bombycis* 또는 그 동속식물」^{30,31)}로 기재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고대의 桑根白皮가 현대의 뽕나무속식물의 根皮와 다르다는 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採收: 神農本草經¹⁵⁾, 新修本草¹⁸⁾에는 뽕나무의 생산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그 후의 名醫別錄¹⁷⁾, 千金翼方³²⁾, 本經疏證³³⁾등에는 「山谷」으로 나타나 있다. 唐代的 大觀本草^{19,20)}에는 「本經不著 所出州土 今處處有之 採無時 不可用 出土上者 用東行根 但須十年以上者之嫩根 剝取其內之皮白皮 焙乾…」, 「桑 處處有之 江浙獨盛…」²⁸⁾이라하여 역시 處處有之라고 막연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나. 本經(신농본초경)에는 산지의 기록이 없으나 이제(AD 1100년경) 각처에서 생산됨을 명시하였고 桑白皮의 채취시기와 품질 및 조제법등을 기술하고 있다.

採取時期는 「三月三日 採東南根 陰乾百日…」³⁴⁾등도 있으나 採無時가 대부분이다. ^{5,11,27)} 明代的 李時珍은 大觀本草¹⁹⁾의 내용을 이어 받았으나 「桑根 見地上者 名馬額 有毒殺人 旁行出土者 名伏蛇 亦有毒… 凡使採十年以上 向東畔嫩根」⁵⁾라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여고, 「根見土面者 有毒傷人…」³⁵⁾ 「出土上者 殺人…」²⁾ 「不可用 出土者…用東行根益佳」 또 「根見土面者 有毒不用」³⁶⁾등 本草綱目を 답습하여 땅위로 나온 뿌리는 유독하여 쓰지 말아야하며 10년이상 묵은 땅속의 東行根의 어린 뿌리가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東醫寶鑑도 그대로 이어 받아 「採無時 出土上者 殺人…」이라하였고, 「뽕나무 불취집질」^{27,37)}의 한글명이 수제되었으며 후세의 方藥合編³⁸⁾에도 「뽕나무 불취집질」로 표기된 것은 의의 큰것이라 하겠다.

근대의 문헌에는 「產於 育蠶之農村 如江蘇 浙江…山東各省」³⁹⁾, 「安徽 河南 湖南等地 其他各地亦產」⁴⁰⁾등으로 산지를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다.

고대에는 야생뽕나무를 山谷에서 캐어 이용하다가 누에치기가 성행됨에 따라 곳곳의 인가근처에 재배하여 무시로 채취하여 품질좋은 桑白皮를 선택하게된 것이라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藥物名: 약용되는 根皮가 처음으로 「桑根白皮」¹⁵⁾로 수제된 이래 각 문헌^{5,19,20)}에 인용되었으나 후세에 와서 사용자는 약용부위가 근괴인 것은 모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根字를 약하게 桑白皮로 通用되었고, 各국약진^{1,29,30)}에도 桑白皮로 수제하고 있다. 더 간결하게 桑皮^{41,42)} 雙皮⁴³⁾등으로 기록하기도 하며 白桑으로 부터 얻어졌고 코르크피를 모두 벗긴 상품을 「以色白…粉性足者 爲佳」⁴⁰⁾라하여 白桑皮 또 鮮度에 의한 生桑皮, 鮮桑皮등 이 있다. 또 땅위로 빼터 나온 뿌리를 馬額有毒殺人 伏蛇亦有毒이라 하여 같은 땅위뿌리를 馬額은 殺人, 伏蛇는 有毒으로 구별하고 같은 황갈색의 虎斑紋理의 코르크층의 色素成分에 독성물질의 存否가 의심된다고 하겠다. 그 밖에 修治를 거친 灸桑皮, 蜜桑皮등과

산지명을 冠한 毫桑皮, 嚴桑皮⁴⁵⁾, 누에에서 얻어진 蓼食蠶⁴⁶⁾, 延年卷雪⁴⁷⁾ 등을 들 수 있다.

뽕나무에서 얻어지는 약물중 「桑即 桑根白皮」¹²⁾라 하였든지 桑白皮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는하나 根皮와 혼돈되기 쉬운 여러 부위가 갖가지 견승요법에 이용되고 있다. 그중 한방의약서^{27,38,40)}에 나타나는 주요한 부위별 약물을 간추리면 Table I과 같다.

그 밖에 뽕나무속식물이 아니면서 桑字를 冠하여 오인되기 쉬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植物性—桑耳(*Auricularia* sp. 菌體), 桑黃(*Phe-llinus* sp. 菌體) 桑芽(*Acer* sp.의 幼芽, 嫩葉), 桑寄生(*Viscum* 또는 *Loranthus* sp. 寄生植物), 桑花(苔類), 柘桑(*Cudrania* sp. 木部) 등.

動物性—桑螵蛸(昆蟲), 桑蠶(昆蟲), 桑扈(鳥類) 등.

이와 같은 약물들은 한방의약서의 桑字項에 자주 나타나는 이름들이나 뽕나무속식물과는 전혀 무관한 명칭들이다.

2. 主治症狀의 變遷

桑白皮의 藥效를 神農本草經¹⁵⁾에는 「主傷中五勞六極 羸瘦 崩中 脉絕 補虛益氣」라고 하여 五臟과 六腑의 기능이 몹시 허약하고 수척하며 脉搏이 微弱하거나 소화기장애, 子宮出血等症에도 이용되고 있다. 補虛益氣는 桑白皮자체에 補益作用이 있는것이 아니고 肺의 火를 제거시킴으로 몸이 편안하게 되어 益氣가 된다는 것이다. 後漢의 金匱要略¹⁶⁾ 梁代의 名醫別錄¹⁷⁾ 唐의 新修本草¹⁸⁾에서도 「去肺中水氣 唾血 熱渴 水腫 腹滿 臃脹 利水道 去寸白蟲 可以縫金瘡」이라 하여 신농본초경의 효능을 답습하고 咳嗽 口渴 浮腫 腹脹滿 利尿 殺蟲 消炎 止血作用등을 열거하였다. 宋代의 經史證類 大觀本草¹⁹⁾에도 治療症狀의 增減이 없이 그대로 활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主治症狀는 金元時代에 이르기까지 담보상 태에 머물렀으나 明代의 本草綱目⁵⁾에서는 「瀉肺利大小腸 降氣 散血」의 症狀이 첨가되어 위로 上氣된 기운을 내려주면서 體內的 惡血을 제거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했다. 神農本草經疏⁴⁸⁾에는 「墜馬拗損 小兒重舌 小兒流涎」이라하여 打撲

Table I. 뽕나무屬植物의 部位別 主要藥物

部 位	藥 物 名	起 源
根 皮	*桑 白 皮	<i>Morus</i> sp. 去栓皮的根皮
樹 皮	桑 皮 汁	<i>Morus</i> sp. 樹皮乳液
根	桑 根	<i>Morus</i> sp. 樹根
根	小葉桑根	<i>M. australis</i> 鳩桑根
木	*桑 枝	<i>Morus</i> sp. 小枝
木	桑 椹	<i>Morus</i> sp. 鮮桑枝的取油
木	*桑 柴 灰	<i>Morus</i> sp. 木部燒成灰
木	桑 柴 火	<i>Morus</i> sp. 桑木所燒之火
木	桑 霜	<i>Morus</i> sp. 灰汁濃縮結晶狀物
木	桑 癭	<i>Morus</i> sp. 老樹上結節
葉	*桑 葉	<i>Morus</i> sp. 葉
葉	桑 葉 汁	<i>Morus</i> sp. 葉脈乳液
葉	桑 葉 露	<i>Morus</i> sp. 葉蒸溜液
果 實	*桑 椹	<i>Morus</i> sp. 果穗
果 實	桑 椹 酒	<i>Morus</i> sp. 果穗桑酒
其 他		

*東醫寶鑑 및 方藥合編 收載品

傷과 小兒의 重舌症 流涎등에 이용되어 왔다. 그후 壽世保元⁴⁹⁾에는 「止咳定喘 消肺火邪 其功不少」라하여 咳嗽 喘息이 肺火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경우에 有效하다고 하였으며 또 景岳全書⁵⁰⁾에는 「治小兒天吊驚風 客忤及傳驚口瘡 大驗」이라하여 小兒의 驚風에 鎮靜을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口內炎등에 消炎效果가 뛰어나다고 하였다. 本草品彙精要²⁾에서는 「通關節」에 쓴다고 하여 일반적인 關節疾患과 rheumatis 질환에 사용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또한 長沙藥解³⁴⁾에는 傳石癰 生眉髮鬚擦疥瘡이라해서 장기간 치유되지 않는 腫氣등의 外科疾患에 이용하였고 皮膚의 疥瘡에 外用하므로써 殺菌效果를 얻었으며 눈섭과 모발의 生毛촉진제로 쓰여 졌다. 清代의 陳修園醫書⁵¹⁾에는 「臟腑俱虛 肉削」이라 해서 臟腑의 허약으로 몸이 수척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근년의 東北之藥材⁴¹⁾에는 「調中下氣 消痰止渴 開胃下食 止霍亂吐瀉 客熱頭痛」이라하여 消化不良과 이로 인한 구토설사 복통에 쓰고 頭痛도 치료하였다. 또 古今中藥集成⁵²⁾에는 「去肺中水氣 熱渴 腹滿 利二便」이라하여 大小便과 糖尿 腹滿등에 유효하여 桑白皮의 응용범위를 확

대시켰다. 최근 「脚氣痺攣…風濕麻木 目昏 黃疸」⁴⁰⁾이라해서 소위 風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脚氣 痺攣 四肢痠攣과 眼昏 黃疸 등의 증상에 頻用되고 있다.

이상의 主症을 集約해서 보면 呼吸器疾患에서 많이 나타나는 咳嗽 喘息 唾血 등에 많이 쓰였고 消化器질환의 腹脹 消化不良 大便不利 등에 有用되며 또 體內에 과다하게 水分이 축적되어 발생된 기능장애로 인하여 허약해진 환자에게 補益劑로도 활용되었다. 利尿와 消炎 효과가 뛰어나므로 小便困難 口內炎 外傷 등에 쓰여졌다. 이외에도 小兒의 驚風의 鎮靜, 타박상의 消炎皮膚疾患의 殺菌 등에 이용했다. 또한 關節炎과 rheumatis 질환에도 유익하다는 것은 利尿 消腫 消炎 殺菌作用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糖尿病과 脚氣 黃疸症에 까지 활용되고 있어서 다른 약에 비하여 치료의 응용범위가 대단히 넓다고 할수 있다.

역대의 本草書에 나타난 桑白皮의 主治症狀을 요약하면 Table II와 같다.

3. 修治와 禁忌

修治: 修治法을 최초로 체계있게 定立한 雷斅는 炮炙論⁵³⁾의 桑白皮項에서 「凡使要十年已上 向東畔嫩根 採得」이라하여 10년 이상 묵은 뽕나무의 根皮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銅刀剝上青黃薄皮一重 只取第二重白嫩 青涎者於槐砧上 用銅刀剝焙 令乾 勿使皮上 涎落 涎是藥力而 不可

去也」라 하여 채취후에 銅刀로써 根의 靑黃色나 薄皮를 벗겨 버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白嫩 青涎者를 취택하여 다시 銅刀로 썰어서 焙乾한다. 만약에 涎(乳液)이 떨어져 나가면 藥效가 없어지므로 없애지않고 사용한다. 이說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植物名實圖考長編⁶⁾에는 「其皮中 青涎 勿使刮去 藥力都在其上」이라 하였으며 山林經濟²⁶⁾에는 「蠶皮取其裡白 暴乾」이라하여 表部의 거친부분(코르크層)을 제거하고 속의 흰것만을 취하여 暴乾한다고 하였다. 또한 東醫寶鑑²⁷⁾의 湯液編에는 「桑白皮 花荵猪鬣 厚朴之類 不去皮則 耗人元氣…」라하여 去皮해서 사용해야만 사람의 元氣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修治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선된 桑白皮를 法製하는데 있어서 壽世保元에는 生用하면 風寒咳嗽에 有效하고 蜜水炒用하면 虛勞로 인한 久嗽에 效果가 있다고 했다. 또 炒桑皮는 「取片諸炒 至微焦爲度」 炙桑皮는 「取片一斤 開煉蜜兩 拌炒蜜汁 全部吸入爲度」⁴⁵⁾라하여 炒할때는 볶는 넘새가 약간 날 때까지 하며 炙할때에는 꿀이 속부분까지 흡수되게 한다고 하였다. 또 醫學入門⁵⁴⁾에서는 生用하면 利尿效果가 있고 陳修園醫書⁵¹⁾에는 「大瀉肺氣」하여 咳嗽와 利尿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최근의 本草用法³⁶⁾에서는 「米泔汁浸三宿」이라하여 咳嗽 吐血이 심한 환자에게 効力이 있는데 때로 꿀과 술을 같이 넣고 法製하

Table II. 歷代本草書의 桑白皮 主治症狀

書 名	氣 味	主 治 症 狀
神農本草經	甘 寒	主傷中 五勞六極 羸瘦 崩中脈絕 補虛益氣
名醫別錄(500년경)	甘 寒	去肺中水氣 唾血熱湯水腫 腹滿臚脹 利水道 去寸白蟲 可以縫金瘡
本草綱目(1596년)	甘 寒	瀉肺利大小腸 降氣散血
神農本草經疏(1610년경)	甘 寒	墜馬拗損 小兒重舌 流涎
壽世保元(1615년)	甘 辛	止嗽定喘 瀉肺火邪 其功不少
景岳全書(1650년경)	甘 寒	治小兒天疳驚風 客忤及傳驚口瘡 大瀉
本草品彙精要(1700년)	甘 寒	通關節
長沙藥鮮(1753년)	甘 澹辛微寒	傳石癰 生眉髮鬚鬢搽疥瘡
陳修園醫書(1840년경)	甘 寒	藏膳俱虛 肉削
東北之藥材(1958년)		調中下氣 消痰止渴 開胃下食 止霍亂吐瀉 客熱頭部
古今中藥集成(1974년)		去肺水氣 熱渴 腹滿 利二便
中藥大辭典(1978년)	甘 寒	脚氣痺率…風濕麻木 目昏 黃疸

여 쓴다고 하였다. 또 糯炒하여⁴⁴⁾ 쓴다고 하였으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禁忌: 藥物配合時에 禁하는 藥과 症狀에 대해서 唐代의 新修本草¹⁸⁾에서 續斷 桂心 麻子를 使한다는 說⁵⁵⁾이 중심이 되어 宋代에서 金元代까지 이어왔으며 明代의 本草品彙精要²⁾ 定宗必讀³⁶⁾ 本草綱目⁵⁾과 근년의 及幼方⁵⁷⁾ 和漢藥考⁴⁷⁾에서 鐵과 鉛을 忌한다하여 修治과정에서 鐵銅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清代의 陳修園醫書에는 忌火라고 하였고 近來의 「肺虛無火 風寒咳嗽者 忌用」⁵⁸⁾이라하여 肺에 火가 없고 쇠약하며 風寒이 원인이 되어 咳嗽를 하는 者는 服用을 忌한다고 하였다.⁵⁹⁻⁶³⁾ 또 方藥合編³⁸⁾에서는 「肺氣虛 風寒作嗽者 慎用」이라하여 역시 肺의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삼가서 복용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風寒感冒肺氣虛 小便過多者 均忌用」³⁹⁾이라하여 感氣를 앓으면서 小便을 과다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복용을 禁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던 修治에서 生用은 利尿 瀉肺作用을 하지만 炙, 炒, 浸하는데 加味되는 꿀, 술, 쌀뜨물에 의해 오랜 咳嗽과 身體의 허약을 돕는데 甚요하게 쓰여졌고 또 禁忌는 鐵과 鉛을 忌하며 風寒의 咳嗽나 尿量이 과다한 환자에게는 慎用하여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處方の 分析

1. 桑白皮와 配劑되는 藥物 및 用量

임상에서 상용되고 있는 桑白皮의 配合藥物과 用量을 알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각국에서 임상서적으로 넓이 알려진 東醫寶鑑²⁷⁾을 택하여 配合되는 藥物과 用量을 발췌하였다.

桑白皮가 配合된 113處方중에서 배합된 藥物의 種數 用量 및 頻度등을 검토하였다.

이들 처방에서 桑白皮와 가장 많이 合方되어진 藥物은 甘草로서 76회에 달하고 杏仁 46, 桔梗 43, 陳皮 40, 人蔘 35, 赤茯苓 31, 蘇葉 25, 知母 20...升麻 7회등의 순으로 Table III과 같이 집계되었다.

甘草는 원래 緩和劑로 百藥에 加味되는 것이기는 하나 鎮靜性祛痰劑이며, 그밖의 杏仁, 桔梗, 麻黃등의 配劑藥材로 미루어 桑白皮의 主治

Table III. 東醫寶鑑處方中에 桑白皮와 配劑되는 主要 藥物 (總 113方中의 一部)

配劑藥物	出現頻度 (回受)	配劑藥物	出現頻度 (回數)
甘 草	76	天 門 冬	14
杏 仁	46	款 冬 花	14
桔 梗	43	青 皮	14
陳 皮	40	薄 荷	14
半 夏	39	當 歸	11
人 蔘	35	阿 膠	11
五 味 子	33	大 腹 皮	11
赤 茯 苓	31	川 芎	11
貝 母	28	柴 胡	10
枳 殼	25	梔 子	9
蘇 葉	24	木 通	9
知 母	20	檳 榔	9
麻 黃	17	前 胡	9
黃 芩	17	升 麻	7
紫 菀	14		
麥 門 冬	14	計	177品目

症인 鎮咳 祛痰 解熱作用등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桑白皮와 동시에 배제되는 藥物의 총수는 177품목이었다.

이들 113方的 처방에 나타난 桑白皮의 用量은 1회의 투여량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한바 1分에서 50分(5錢)까지 처방되었고 100分(1兩)에서 300分(3兩)까지는 散·丸劑등의 다량으로 조제되는 처방량이었다. 이를 종합한바 Table IV와 같으며 가장 많이 활용하는 用量은 10分(1錢)과 7, 5, 10.5分 등으로 5~10.5分이 常用量임은 알 수 있다. 113處方중에서 임상적가들이 頻用되리라고 여겨지는 6處方을 택하여 效能과 用量을 종합하면 다음 Table V와 같다.

桑白皮가 配合되는 處方の 적응증과 配合藥物 用量을 보면 瀉白散은 肺實證이 원인이 되어 發病하는 모든 疾患에 通用되어 小兒와 成人의 感氣 咳嗽 喘息 乾咳와 肺熱로 인한 口內炎, 小兒의 모든 熱을 제거하는데 活用되고 있다. 여기서 桑白皮가 主劑로 쓰여졌고 作用 역시 주된 效能을 나타내고 있다.

桑皮散은 身體 上部에 熱이 있으면서 胸膈部

Table IV. 桑白皮의 用量 및 頻度(東醫寶鑑 113方中)

用量(分)	頻度(數)	用量(分)	頻度(數)
1(0.375g)	1	10.5	12
3	1	20	7
5	12	20.5	1
6	1	30	2
7	13	50	3
7.5	1	100	5
8	2	150	1
10(3.75g)	34	200	1
等分(약 3.75g)	2	250	1
10.2	1	300	1
10.25	1		

位에 重壓感을 느끼고 답답하며 咳嗽을 계속하면서 호흡이 축급한 환자에게 투여한다. 本方에서 薄荷 柴胡 桔梗등과 配合하여 熱을 제거시키면서 鎮咳祛痰作用을 한다.

清肺飲은 肺에 熱이 있고 咳嗽가 치료되지 않을때에 祛風劑와 같이 쓰이며 秘傳降氣湯은 身體의 상부로 上氣가 되어 머리와 눈이 어둡고 어지러우며 허리와 다리에 無力感을 있을때에 투여한다.

五皮散은 일반적으로 浮腫에 많이 服用하여 消炎 利尿시키면서 치료하고, 桑白皮湯은 糖尿病의 초기증상에 施用되는 처방이다.

2. 東醫寶鑑 桑白皮配合處方의 効能

桑白皮를 處方의 配劑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後漢時代의 金匱要略¹⁶⁾에 「病舍瘡 王不留散

主之」라하여 「王不留行 十分 蒴藶細葉 十分 桑東南根白皮 十分 甘草 十分 川椒 三分 黃芩 二分 乾干二分 芍藥 厚朴 各二分 上九味 桑白皮以三味燒灰存性 勿令灰過 各別杵節合治之 爲散服 方寸匕 小瘡即粉之 大瘡但服之 產后亦可服 如風寒 桑東根勿取之 前三物皆陰乾百曰」로 燒灰粉末로 만들어 患處에 바르거나 煎服하므로 效험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後世의 醫家들은 外科的인 用途로 쓰기보다 鎮咳 祛痰 利尿等の 目的으로 투여하고 있다.

東醫寶鑑에 수록된 方劑는 古代의 處方으로부터 後世의 임상가들에 이르기까지 効能이 탁월한 것만을 발췌한 것이어서 증상의 표현법에 차이점이 많아 명확한 적응증과 병명의 분류는 곤란하였다. 그러나 東醫寶鑑에 수록된 桑白皮 配合處方 113方に 기재된 病症을 漢醫學의 檢討하여 集約하면 Table VI과 같다. 呼吸器系統의 諸病이 가장 많아서 69症例, 다음은 消化器系統의 諸病 13, 利尿作用을 하는 諸病 12, 解熱作用의 諸病症 11, 外傷과 皮膚疾患의 諸病 10, 神經系統 諸疾患 6, 血과 관계되는 諸病 6, 婦人科疾患의 諸病 4, 小兒科의 諸病 2, 其他의 諸病 7症例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桑白皮가 가장많이 쓰여진 疾患은 呼吸器系疾患의 痰喘 咳嗽上氣 久嗽 咽乾 등에 쓰여졌고 다음으로 消化器系의 吐噎不食 飲食不振 傷食등에 浮腫 尿澀氣急등의 利尿作用과 發熱自汗 虛勞客熱을 치료하는 解熱作用에

Table V. 東醫寶鑑에 收載된 桑白皮의 主要配合處方

處方名	適應症	配合藥物 및 用量
汚白散	治 肺 實	桑白皮 地骨皮(各二錢) 甘草(一錢)
桑皮散	治上焦有熱 血壅經悶嗽聲 連併 氣不得透	甘草(一錢半) 薄荷 桔梗 川芎 防風 桑白皮 黃芩 前胡 蘇葉 柴胡 赤茯苓 枳殼(各八分)
清肺飲	肺 熱 咳 嗽	前胡 荊芥 桑白皮 枳殼(各一錢) 知母 貝母 薄荷 赤茯苓 紫蘇葉 阿膠(珠) 杏仁 天門冬 甘草(各七分)
秘傳降氣湯	治上氣及氣不升降 頭目昏 眩腰脚無力	桑白皮(一錢) 陳皮 枳殼 柴胡 甘草炙(各五分) 地骨皮 五加皮 骨碎補 訶子皮 草果 桔梗 麴(各三分)
五皮散	因他病變作水腫浮虛	大腹皮 茯苓 生干皮 桑白皮 陳皮(各一錢半)
桑白皮湯	治 三 消 渴	桑白皮(三錢) 茯苓 人蔘 乾葛 山藥 桂皮(各一錢) 甘草(五分)

Table VI. 桑白皮配劑處方 治療系統別 分類

(總 113處方中)

順位	治療系統	症狀數	症 狀 例
1	呼 吸 器 系	69	痰喘 咳嗽上氣 痰涎不利 久嗽 痰嗽 肺脹嗽 肺熱咳嗽 火嗽 清肺 咽乾口燥 風寒喘 痰喘等
2	消 化 器 系	13	吐噦不食 飲食不進 傷飲食等
3	利 尿 作 用	12	浮腫 涌水 大小便不通 尿澀氣急等
4	解 熱 作 用	11	發熱自汗 積熱除毒 虛勞客熱 潮熱自汗等
5	外傷 및 皮膚疾患系	10	一切金瘡 渡水跌瀉 遍身瘡痒痛等
6	神 經 系	6	着痺 四肢麻木 拘攣 痛痺等
7	血 및 沫尿系 嗣	6	衄血不止 房勞后小便出血等
8	婦 人 科 系	4	子淋 子腫等
9	小 兒 科 系	2	小兒痰喘 重舌等
10	其 他	7	多渴 結腸 氣不外降等

有効하고 一切의 外傷과 身痒痛을 치료하는 皮膚疾患 또는 四肢麻痺 着痺를 치료하는 神經系疾患에 쓰고 尿血과 鼻出血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婦人科系에서 利尿와 消炎작용으로 발병된 子淋 子腫에도 쓰며 소아과계 있어서 熱로 인한 喘急 重舌등에도 쓰여졌다. 이 밖에 口渴 結腸 등 陽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발병한 熱症에도 썼음을 알 수 있다.

結 論

歴代의 한방의약서와 本草文獻 및 處方書에 수록된 桑白皮에 관한 起源, 採取法 藥物名 主治症狀의 변천과정과 修治와 禁忌 및 우리나라의 名醫書인 東醫寶鑑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처방중 桑白皮와 配劑되는 약물 및 약효등에 대하여 본초학적인 측면에서 書誌學的으로 分析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起源植物은 古代의 桑根白皮가 오늘날의 뽕나무속식물의 根皮와 다르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고 明代以後는 桑白皮로 通稱하고 있다. 채취시기는 無時로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며 10년이상 묵은 根皮가 양품이라 하였다. 채취후 코르크층을 제거하여야하면 특히 地上根은 有毒함을 강조하고 있다.

2. 藥効의 主治症의 변천과정은 神農本草經의 내용을 계승하여 왔으나 明代에서 부터 발전되

기 시작하여 근래에 와서는 外科 및 皮膚疾患 류마치스, 脚氣, 糖尿病등에까지 廣範圍하게 擴大되어졌고 修治에 따라 그 발현효능이 다르다 하였다.

3. 東醫寶鑑中の 桑白皮가 配劑되는 처방은 113方이고 배합되는 약물수는 모두 117품목이었다. 甘草가 사용빈도 68%로 가장 컸고 杏仁 桔梗 茯苓...麻黃등의 순으로 鎮咳 祛痰 消炎 利尿 解熱作用이 강하게 나타남을 증명하고 있다. 服用量은 1회 3.75g이 頻도가 가장 큰 34회이었고 常用量은 2~4g 범위임을 알 수 있었다.

4. 동의보감의 113방의 適應症을 치료계통별로 분류하여 集計한바 呼吸器系의 질환에 투여되는 69症例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消化器系 13, 利尿作用 12, 解熱作用 11症例의 순이었고 그밖에 外科, 神經, 婦人科 및 小兒科系의 질환에 쓰이는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桑白皮는 주로 呼吸器疾患의 치료약제임을 立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약용식물의 분석」중 桑白皮에 관한 연구의 일부이다. 1979년도에 학술연구비를 지원하여 주신 財團法人 產學協同財團에 감사들인다.

文 獻

1. 보건사회부: 대한약전 제 3개정, 서울, 세문사, p. 734 (1976).

2. 劉文泰：本草品彙精要 홍콩, 商務印書館(重刊), 上冊 p. 497 (1700).
3. 劉時明·韓大錫：本草學, 서울, 東明社, p. 56 (1962).
4. 金文浹：栽桑學, 서울, 鄉文社, p. 14-20 (1978).
5. 李時珍：本草綱目, 대만, 文光圖書(重刊) p. 1180 (1970).
6. 吳其濬：植物名實圖考長編, 홍콩, 中華書局(重刊) p. 1082 (1962).
7. 李 昉：太平御覽, 홍콩, 商務印書館(重刊) p. 4373 (1975).
8. 李德鳳：有用植物, 서울, 文教部 p. 185 (1974).
9. 李昌福：野生食用植物圖鑑, 서울, 林業試驗場 p. 16 (1969).
10. 徐有築：林園十六志(仁濟志), 서울대학교, 卷二十五附餘, p. 364 (1968).
11. 盧重禮 등：鄉藥集成方, 서울, 杏林書苑(重刊) 卷八十木部, p. 642 (1943).
12. 木村康一：藥學大全書, 동경, 北平閣 2, 23(1939).
13. 嚴星橋：增證本草從新, 대만, 文化圖書(重刊) p. 28 (1961).
14. 陳修園 등：本草三家合註, 대만, 鴻寶齋書局(重刊) p. 12 (1976).
15. 孫星衍編：神農本草經 中品, 대만, 自由出版社(影間經堂藏版重刊), p. 166 (1969).
16. 張仲景：金匱要略, 대만, 東方書店(重刊) p. 90 (1950).
17. 那琦等編：名醫別錄, 대만, 中國醫藥學院 p. 78 (1977).
18. 蘇頌 등：新修本草, 대만, 國立中國醫藥研究所(重刊), 卷十三, p. 304 (1964).
19. 唐慎微：經史證類大觀本草, 대만, 國立中國醫藥研究所(重刊) p. 362 (1971).
20. 唐慎微：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대만, 南天書局(重刊), p. 315 (1976).
21. 鄭台鉉 등：朝鮮產 野生藥用植物, 林業試驗場 p. 58 (1936).
22. 村田懋磨：滿鮮植物字彙, 동경, 成光館 p. 210 (1930).
23. 鄭台鉉：韓國植物圖鑑, 서울, 新志社, 上, p. 121 (1961).
24. 莊兆祥 등：香港中草藥, 홍콩, 商務印書館 p. 22 (1979).
25. 蘭 茂：滇南本草, 人民出版社, p. 251 (1976).
26. 洪萬選：山林經濟, 서울, 景仁文化社(重刊) p. 496 (1973).
27. 許 浚：東醫寶鑑, 대만, 東方書店(重刊), p. 740 (1962).
28. 張隱菴：本草崇原集解, 上海, 錦文堂(重刊), 卷上 9 (1926).
29. 衛生部：China's Pharmacopoeia I,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 510 (1977).
30. Federation of Asi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sian Pharmacopoeia First edition, Manila p. 69 (1978).
31. 日本公定書協會：第九改正 日本藥局方解說, 동경, 廣川書店, p. 527 (1976).
32. 孫思邈：千金翼方, 대만, 國立中國醫藥研究所, 卷三, p. 38 (1974).
33. 鄒潤安：本經疏證, 대만, 旋風出版社, 第八卷, p. 193 (1974).
34. 黃元撰：長沙藥解, 上海, 錦章圖書局, 卷四, p. 24 (1753).
35. 張石頭：本經逢原, 上海, 錦章書局(重刊), 卷三, p. 21 (康熙乙亥)
36. 周志林：本草用法研究, 대만, 宏業書局, p. 466 (1974).
37. 康命吉：濟衆新編, 서울, 通文館(重刊), p. 155 (1968).
38. 黃道淵：方藥合編, 서울, 杏林書苑, p. 102(1948).
39. 時逸人：中國藥物學, 대만, 東方書店, p. 37 (1960)
40. 江蘇新醫學院編：中藥大辭典, 상해, 上海技術出版社, 下卷, p. 1968 (1978).
41. 岡西爲人：東北之葯材, 대만, 國立中國醫藥研究所 p. 152 (1958).
42. 河北省衛生局：河北中草藥, 河北出版社, p. 932 (1977).
43. 清水藤太郎：漢藥典, 동경, 廣川書店, p. 70 (1963)
44. 陳在仁：中國藥學大辭典, 대만, 旋風出版社, p. 969 (1960).
45. 李樹猷：現代中藥學, 대만, 正中書局, 上, p. 710 (1970).
46. 李泰浩：鮮漢藥物學, 서울, 杏林出版社, p. 182 (1931).
47. 小泉榮次郎：和漢藥考, 동경, 朝香屋書店, p. 304 (1927).
48. 膠希雍：神農本草經疏, 대만, 商務印書館, 卷十三 p. 1 (1973).

49. 龔延賢：壽世保元，대만，旋風出版社，p. 48 (1974).
50. 張介賓編：景岳全書，대만 臺聯國風出版社，p. 946 (1972).
51. 陳修園：陳修園醫書，대만，文光圖書，上卷，p. 39 (1972).
52. 醫藥研究社編：古今中藥集成，대만，正言社，p. 253 (1974).
53. 李中梓撰：雷公炮製藥性解，대만，文光圖書，p. 91 (1970).
54. 李 梴：醫學入門，대만，東方書店，p. 194 (1950)
55. 李東垣：湯液本草，서울 慶熙大(重刊)，下卷，p. 9 (1973).
56. 李中梓：醫宗必讀，대만，文光圖書(重刊) 明崇禎丁丑年版，p. 120 (1978).
57. 趙延俊：及幼方，筆寫本 p. 115 (1952).
58. 好安那：藥性大辭典，대만，文化圖書，p. 196 (1968).
59. 上海中醫學院編：中草藥學，上海，商務印書館 p. 50 (1976).
60. 陸昌洙·安德均：現代本草學，서울，商文社，p. 393 (1972).
61. 汪 昂：本草備要，서울，高文社(重刊) p. 112 (1974).
62. 啓業書局編：中國藥材學，대만，啓業書局，p. 324 (1974).
63. 潘宗元：分經藥性賦，대만，東方書店，p. 4 (1960)